

# 雪岑의 『華嚴釋題』에 미친 清涼澄觀의 著述

慧南(蘆在性)

譯經學科 教授

1980년대 초반에 金知見 박사가 일본의 印佛學會에서 『華嚴釋題』를 소개하는 것을 보았다. 대강 훑어보니 내용은 거의 清涼澄觀의 저술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해 보였다. 그러나 金박사의 권유에 따라 뒷부분을 살펴보니, 설잠의 禪教不異의 세계를 잘 보여주는 명작이었다. 그러나 그 첫부분은 틀림없는 澄觀 저술의 모음이었다. 이에 대한 줄건을 『雪岑의 華嚴釋題에 미친 澄觀의 著述』이라는 제목으로 1997년 鎌田茂雄博士古稀記念會에서 발간한 『華嚴學論叢』에 발표한 적이 있으나, 이번에 이것을 새로 정리하여 발표하기로 하였다.

# 雪岑의 『華嚴釋題』에 미친 清涼澄觀의 著述

慧南(蘆在性)  
譯經學科 教授

- I. 들어가는 말
- II. 『華嚴釋題』에 인용된 澄觀의 著述
- III. 澄觀 著作物과의 比較表
- IV. 맺는 말

## I. 들어가는 말

雪岑(1435~1493)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에게 낯선 이름이다. 오히려 그의 본명인 金時習이 生六臣의 한 사람으로서 忠節의 선비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栗谷集』에 수록된 李珣의 金時習傳에는

心儒跡佛 取怪於時 乃故作狂易之態 以掩其實云云.

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즉 훗날 世祖가 된 首陽大君의 왕위 찬탈사건에 비분강개하다가 마침내 발광하여 승려의 옷을 입었지만 내심으로는 유교를 신봉하였고, 때로는 괴이한 행동과 미치광이의 태도를 보여서 그의 본색을 감추려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사실 승려인 설잠(雪岑)이 누구를 스승으로 하여 沙彌戒와 比丘戒를 수지하였으며, 어떤 스승 밑에서 어떠한 수행을 하였는지 알 길이 없다. 오히려 그의 호가 청한자(淸寒子), 매월

당(梅月堂)인 점으로 보아 도교적인 느낌을 받는다. 사실 현재 그의 이름이 실려 있는 『해동단학계보』(海東丹學系譜)까지 전해 오고 있다<sup>1)</sup>

그러나 雪峯의 불교 관계 저작은 현존하는 것만 해도 『蓮經別讚』 1권, 『華嚴釋題』 1권, 『大華嚴法界圖注并序』 1권, 『十玄談要解』 1권, 『梅月堂全集佛教關係詩文抄』 등이 『韓國佛教全書』(이하 『韓佛全』이라 함) 第七冊에 수록되어 있다.

조선 초기에 『金剛經五家解說誼』·『圓覺經疏』·『儒釋質疑論』 등을 저술한 涵虛得通(1376 ~ 1433) 이후 승려의 저작을 거의 볼 수 없었던 시기에 雪峯이 불교 관계의 저술을 남긴 것에 대해 金永泰는 『雪峯當時의 佛教政策과 敎團事情』에서 “참으로 雪峯이 없었던들 당시 승가의 學佛과 수선을 어떻게 엿볼 수나 있었겠는가? 그 현존 저술이야말로 진정 朝鮮前記의 闢佛暗黒期에 불타의 慧命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희망의 산 증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sup>2)</sup>라고 주장하여 李珥(1536 ~ 1584) 등이 주장한 ‘중의 모습만 하였을 뿐 마음은 유교의 신자였다’라는 평가가 적당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雪峯은 悲憤慷慨하여 세상을 뛰쳐나와 불법에 몸을 숨겼다가 끝내는 불법에 의하여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 遊戯三昧로써 任運騰騰한 인물이었다.”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雪峯의 많은 저서 가운데 『華嚴釋題』는 일찍이 金知見 박사가 일본의 인도학불교학회에 소개하고 또 그가 주재한 江原大學校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玉成康四郎의 『華嚴釋題』의 佛敎學的意義에서 지적한 것처럼 澄觀敎學的의 영향이 많은 것이다. 이에 소론은 『華嚴釋題』를 해석하면서 거기에 인용된 澄觀의 저술에 대해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 Ⅱ. 『華嚴釋題』에 인용된 澄觀의 著述

먼저 『華嚴釋題』(이하 『釋題』라 함)를 보면 그 첫머리에,

『대방광불화엄경』이라는 것은 모든 부처님의 비밀장이고 여래의 성품바다(性海)이다. 그것을 보는 자가 그 旨歸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헤아리는 자 그 涯際를 헤아릴 수 없구나! … 중략 … 性海의 波瀾을 더함이요, 법계의 疆域을 넓힘이로다. 大乘頓敎가 널리 무궁에 입히고

1) 梁銀容 『淸寒子 雪峯의 丹學修練과 道敎思想』, 1989년 江原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編, 『梅月堂 古文學과 思想』, pp.139 ~ 161.

2) 위의 책, p.35 ~ 36쪽.

3) 위의 책, p.36쪽.

4) 方廣眞筌이란 것은 좋은 통발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듯이 方廣의 대승경전이 공간적으로는 온 법계중생을, 시간적으로는 영원히 고통 바다의 중생을 인도하여 열반의 언덕에 도달하게 함을 말한 것이다.

方廣의 진실한 통말이 멀리 有識을 꾸리니<sup>4)</sup> 어찌 후 오백 세에 홀연히 金口의 말씀을 받들며 사바의 경계 가운데에 문득 구슬의 비밀을 열게 될 줄을 생각하였으리요.<sup>5)</sup> 德으로 칭할 수 없는 것은 오직 法界뿐이로다.

大方廣佛華嚴經者. 斯乃諸佛之密藏. 如來之性海. 視之者莫識其旨歸. 挹之者. 罕測其涯際  
 … 중략 … 添性海之波瀾. 廓法界之疆域. 大乘頓教. 普被於無窮. 方廣眞筌. 遐該於有識. 豈謂  
 後五百歲. 忽奉金口之言. 娑婆境中. 俄啓珠函之秘. 無德而稱者. 其唯法界歟.<sup>6)</sup>

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글은 大周의 則天皇帝證聖 元年(695) 3月 15일부터 聖曆 二年(699) 十月八일까지 實叉難陀가 則天皇帝의 칙명에 의해서 大遍空寺에서 80권본 『화엄경』을 번역한 뒤 황제 자신이 지은 『大周新譯大方廣佛華嚴經序』(이하 『序文』이라고 함)의 일부이다<sup>7)</sup>. 그 가운데 ‘…중략…’ 부분은 『序文』의 원문을 雪峯이 생략한 부분이고 ‘…’은 원문 그대로 인용하지 아니하고 雪峯이 자신의 말로 추가한 부분이다. 이러한 방법은 앞으로 澄觀의 모든 저술과 대조할 적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다. 참고로 『序文』의 원문에는 “無得而稱者. 其唯大覺歟.”<sup>8)</sup>라는 구절이 있다. 또 이 『序文』은 澄觀의 『大方廣佛華嚴經演義鈔』(이하 『演義鈔』라 함) 卷第16으로부터 卷第17에 걸쳐서 상세하게 해석하고 있으며<sup>9)</sup> 澄觀의 『華嚴經疏鈔玄談』 卷第九(澄光寺版을 비롯한 국내 판본 및 嘉興藏 收錄本은 卷 第八)에는 『序文』의 全文을 수록하고 『演義鈔』의 해석을 덧붙이고 있다<sup>10)</sup>.

다음에 『釋題』는,

법계라는 것은 일체중생의 身心本體이다. 근본으로 좇아 온 이래로 영명하고 확철하며 광대하고 허적하여 오직 一眞의 경계일 뿐이다. 形貌는 없으나 대천세계에 森羅하고 邊際는 없으나 萬有를 함용하도다. 心目의 사이에 昭昭하게 밝지만 그 모습을 볼 수 없고 色塵의 속에 晃晃하게 빛나지만 그 이치를 알 수 없으니, 법을 통철한 智慧의 눈(目)과 생각을 떠난 밝은 지혜가 아니면 자기 마음(自心)의 이와 같은 靈通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세존이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시고 탄식하여 말씀하시기를 “기이하구나! 내가 이제 널리 일체중생을 보니 여래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건만, 다만 망상과 집착 때문에 능히 증득하지 못하는구나.” 하셨다.

5) 이것은 80권본 『화엄경』을 만나게 된 기쁨을 나타낸 것이다

6) 『韓佛全』 7, p.295. 중.

7) 이 序文은 현재 80권본 『화엄경』의 서두에 수록되어 있다(『대정장』 10, p.1. 상 ~ 중)

8) 大正藏 10, p.1. 상

9) 大正藏 36, pp.124. 상 ~ 127. 중

10) 新纂, 『續藏』 5, pp.847. 상 ~ 851. 상

法界者. 一切衆生之身心本體也. 從本以來. 靈明廓徹. 廣大虛寂. 唯一眞境而已. 無有形貌而森羅大千. 無有邊際而含容萬有. 昭昭於心目之間而相不可觀. 晃晃於色塵之內而理不可分. 非徹法之慧目. 離念之明智. 不能見自心. 如此之靈通也. 故世尊. 初成正覺. 歎曰奇哉. 我今普見一切衆生. 具有如來智慧德相. 但以妄想執着. 而不能證得. (『韓佛全』 7, p.295. 중)

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玉成康四郎도 지적한 것처럼<sup>11)</sup> 裴休(797 ~ 870)의 『注法界觀門序』<sup>12)</sup>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지만 그보다 앞서 憲宗元和 五年(810)에 황제가 華嚴法界에 대해 질문하자 澄觀이 대답한 내용이다. 『隆興編年通論』(이하 『通論』이라 함) 卷第 21<sup>13)</sup>을 비롯하여 각종 불교 관계의 史書와 嘉興藏經과 韓國版의 『華嚴玄談』 卷第一에는 이 뒤에,

“이에 법계의 심품에 맞추어 『화엄경』을 설하셨으니 온전히 眞空으로써 妄情을 가리고 事와 理가 融攝하여 周遍寂寂한 것입니다.”라고 설법을 마치자 황제는 타고난 총명으로 한 번 현묘한 말씀을 듣고 확연하게 自得하여 이에 有司에게 조칙을 내려 印을 새겨 淸涼국사를 옮겨 천하의 승려들을 거느리게 하고 僧統淸涼國師라고 불렀다

라고 기술하고 『華嚴玄談』 卷第一은 『上問華嚴法界』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다. 참고로 여기서 “印을 새겨서 僧統淸涼國師라고 불렀다.”라는 구절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唐代的 僧統制度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sup>14)</sup>

『釋題』는 다음 節에서,

華嚴의 宗旨를 開示함에 … 중략… 세 번 거듭 어리석음을 다하니 이슬이 天池에 떨어짐에 百川의 맛을 머금게 됨을 기뻐하고, 티끌이 華岳에 올려짐에 萬仞의 높이에 더할 것이 없구나! 온 허공을 헤아릴 수 있더라도 體에 邊涯가 없음은 ‘大’ 이고 바닷물을 다 마실 수 있더라도 법문이 다함의 없음은 ‘方’ 이고 티끌의 수와 같이 많은 세계를 부순 가루를 헤아릴 수 있더라도 用을 헤아릴 수 없음은 ‘廣’ 이고 깨달음과 깨달을 바를 떠나서 萬法の 幽邃를 밝게 함

11) 위의 책 p. 57

12) 大正藏 45, p.683. 중

13) 『卍續藏』 史傳部 20, p.626. 하

14) 唐代的 僧統제도에 대해서 山崎宏 『唐代的 僧官』(『支那佛敎史の展開』, p.628 ~ 632. 道端良秀 『中國佛敎史全集』 第二卷, p.135 ~ 136. 中富敏治 『唐代的 僧統』(1960年, 『大谷學報』 第四十卷 第三號, P. 135 ~ 136). 鎌田茂雄 『中國佛敎史の研究』, p.167, pp.221 ~ 227. 졸론 『僧統澄觀과 그 生沒年代에 대해서』(平成元年 『印佛學研究』 第三十八卷 第一號 등) 이 있다.

은 '佛'이고, 萬行을 芬敷하여 衆德을 榮輝함은 '華'이고, 이 行德을 원만히 하여 저 十身을 장식하는 것은 '嚴'이고, 玄微를 貫攝하여 眞空의 채색을 이룸은 '經'이다.

開示華嚴宗旨. …중략… 三復竭遇. 露滴天池. 喜舍百川之味. 塵培華岳. 無增萬仞之高. 極虛空之可度. 體無邊涯. 大也. 竭滄溟而可飲. 法門無盡. 方也. 碎塵刹而可數. 用無能測. 廣也. 離覺所覺. 朗萬法之幽邃. 佛也. 芬敷萬行. 榮輝衆德. 華也. 圓慈行德. 飾彼十身. 嚴也. 貫攝玄微. 以成眞光之彩. 經也.<sup>15)</sup>

이 부분은 다음 절에서 제시할 『釋題』와 澄觀 著書의 대조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貞元疏』의 서문이다. 『通論』 卷第19에 의하면 貞元 12년(796) 德宗의 칙명에 의하여 罽賓三藏般若와 함께 烏茶國으로부터 進上받은 『華嚴後分梵籙』의 번역을 시작하여 貞元 14년 2월 24일에 번역을 마치고 황제에게 올리자, 덕종은 『華嚴宗旨』를 開示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澄觀이 高座에 올라 내린 법문으로서 嘉興藏 收錄本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의 각종 판본에는 그 전후 사정을 모두 서술하고, 『詔清涼講華嚴經題』라고 이름 붙였다. 雪岑은 이 법문의 一部를 拔萃하고(중략)부분을 뛰어 넘은 것이다.

『釋題』 다음부분에,

거룩하구나! 진리의 世界여! 萬法이 이로부터 시작하노라. 空과 有를 포함하되 相이 끊어졌으며, 言象에 들어가되 자취가 없음이로다. 妙有가 이를 얻으므로 있는 것이 아니고, 眞空이 이를 얻으므로 空이 아니며, 생멸이 이를 얻으므로 眞常하고, 연기가 이를 얻으므로 서로 비춤이로다. 우리 부처님이 이를 얻음에 묘하게 眞覺을 밝고 확연히 塵習을 깨끗이 하사 萬化의 域에 寂寥하고 一虛의 가운데 動用하며 身刹을 융합하여 서로 합하고 譬光을 流出하여 멀리 비춤이로다. 우리 황제가 이를 얻으므로 신령스럽게 虛極을 거울삼도다 …중략… 太虛가 있지 아니하면 어찌 가없는 비춤을 펼 수 있으며 眞界가 있지 아니하면 어찌 허공과 같은 마음을 조출히 하리오. …중략… 모든 부처님(諸佛)의 마음[心] 안에 중생이 새롭고, 새롭게 부처(佛)를 짓고(作佛), 중생심 가운데 제불이 생각 생각에 眞理를 증득하도다. [干變으로 動하나 많은 것이 아니고 事理가 교섭하나 둘 다 없으며 성상이 융통하나 다함이 없음이로다] (『화엄경』) 一字의 法門을 海墨으로 써도 다하지 못하고(『화엄경』에서 말하는) 一毛의 善을 허공계가 다하더라도 다할 수 없구나! 그 定을 말할진대 一如의 무심에 명합하여 萬法의 動搖에 즉하나 항상 高요함이로다. 바다와 같이 맑은 참다운 지혜는 빛이 性空을 머금고 별같이 羅列한 法身은 그림자가 心水에 떨어지도다. 원음은 두드리지 않으나 길이 펼쳐지며 果海는 생각을 여의나 마음으로 전함이로다. 만행은 비춤을 잇으나 가지런히 닦음이로다.

15) 『韓佛全』 7, p.295.중 ~ 하

大哉眞界. 萬法資始. 包空有而絕相. 入言象而無迹. 妙有得之而不有. 眞空得之而不空. 生滅得之而眞常. 緣起得之而交映. 我佛得之. 妙踐眞覺. 廓淨塵習. 寂寥於萬化之域. 動用於一虛之中. 融身刹以相舍. 流聲光而還燭. 我皇得之. 靈鑿虛極. 一중략一不有太虛. 曷展無涯之照. 不有眞界. 豈淨等空之心. 一중략一諸佛心內. 衆生. 新新作佛. 衆生心中. 諸佛. 念念證眞. 一(動千變而非多. 事理交涉而兩忘. 性相融通而無盡)——一字法門. 海墨書而不盡. 一毫之善. 空界盡而無窮. 語其定也. 冥一如於無心. 卽萬法動而常寂. 海湛眞智. 光含性空. 星羅法身. 影落心水. 圓音. 非叩而長演. 果海. 離念而心傳. 萬行. 忘照而齊修<sup>16)</sup>

이 단락도 역시 『貞元疏』의 序文이다. 『通論』 卷第19에 의하면 “貞元 15년에 淸涼이 ‘鎮國大師’ 라는 號를 받고 ‘天下大僧錄’ 이라는 職책을 맡았다. 4月 帝誕節에 有司에게 조칙을 내려 儀輦을 갖추어 教授和尚인 澄觀을 맞이하여 內殿에서 화엄종지를 강의하였다.” 라고 하면서 設법의 전문을 실고 있는데, 雪峯은 이것을 여러 곳에서 발췌하여 짜집기를 한 것이다.

이 가운데 ‘一중략一’ 은 역시 一 中略一된 부분이지만, ‘一{}一’ 부분은 澄觀의 원문은 “念念證眞”에서 바로 “一字法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雪峯이 이 법문의 앞부분에 있었던 澄觀의 말을 그 사이에 끼워넣은 것이다. 참고로 앞에서 소개한 澄觀의 이 세 가지 設법은 가흥장경과 한국판의 『華嚴經疏鈔玄談』 및 『淸涼山志』에 전문을 수록하고 많은 불교사서가 그 大要를 기록하고 있다<sup>17)</sup>. 이 다음의 『釋題』는 『華嚴經疏』를 인용하고 있으나 내용이 너무 길고 본교 부설 불전국역원의 연구생들이 역주한 『譯註華嚴經疏鈔玄談』 第1권에 전문이 번역되어 있으므로 雪峯의 원문만 수록하기로 하였다.

往復無際. 動靜一源. 含衆妙而有餘. 超言思而迥出者. 其唯法界歟. 剖裂玄微. 昭廓心境. 窮理盡性. 徹果該因. 汪洋沖融. 廣大悉備者. 其唯大方廣佛華嚴經焉. 故我世尊. 十身初滿. 正覺始成. 乘願行以彌綸. 混虛空爲體性. 富有萬德. 蕩無纖塵. 湛智海之澄波. 虛含萬象. 皎性空之滿月. 頓落百川. 不起樹王. 羅七處於法界. 無違後際. 暢九會於初成. 盡宏廓之幽宗. 被難思之海會. 圓音落落. 該十刹而頓周. 主伴重重. 極十方而齊唱. 雖空空絕跡. 而義天之星象燦然. 湛湛亡言. 而教海之波瀾浩汗. 若乃千門潛注. 與衆典爲洪源. 萬德交歸. 攝羣經爲眷囑. 其爲旨也. 冥眞體於萬化之域. 顯德相於重玄之門. 用繁興而恒如. 智周鑑而常靜. 眞妄交徹. 卽凡心而見佛心. 事理雙修. 依本智而求佛智. 理隨事變. 則一多緣起之無邊. 事得理融. 則千差涉入而無碍. 故得十身歷然而相作. 六位不亂而更收. 廣大卽入於無間. 塵毛包納而無外. 炳然齊現. 猶彼芥(餅)具足同時. 方之海滴. 一多無碍. 等虛空之千光. 隱顯俱成. 似秋空之片月. 重重皎映. 若帝網之垂珠. 念念圓融. 類夕夢之經

16) 『韓佛全』 7, p.295.중 ~ 하

17) 상세하게는 불전국역원에서 펴낸 『譯註華嚴經疏鈔玄談』 第1권의 解題 및 줄은 『華嚴經疏鈔』의 流傳』 참조.

世. 法門重疊. 若雲起長空. 萬行芬披. 比花開錦上. 若夫高不可仰. 則積行菩薩曠魚思鑿於龍門. 深不可窺則上德聲聞杜視聽於嘉會. 見聞爲種. 八難超十地之階. 解行在躬. 一生圓曠劫之果. 獅子奮迅. 衆海頓證於林中. 象王回遊. 六千道成於言下. 啓明東廟. 智滿不異於初心. 寄位南心. 因圓不逾於毛孔. 剖微塵之經卷. 則念念果成. 盡衆生之願門. 則塵塵行滿. 眞可謂常恒之妙說. 通方之洪規. 稱性之極談. 一乘之要軌也. 尋斯玄旨. 却覽餘經. 其猶累日麗天. 奪衆景之耀. 須彌橫海. 落群峯之高. 是以菩薩搜秘於龍宮. 大賢闡揚於東夏. 顧惟正法之代. 尙愷清輝. 幸哉像季之時. 偶斯玄化. 況逢聖主. 得在靈山. 曷思幽宗. 豈無慶躍<sup>18)</sup>.

라고 이른바 『往復序』라고 불리는 澄觀의 「華嚴經疏序」를 그대로 옮겨 놓았다. 몇 군데 글자의 異同이 있으나 이것은 다음 절의 對照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미에 커다란 차이는 없다. 참고로 이 서문은 澄觀의 화엄교학에 대한 眼目이라고 할 만한 것으로 옛날에는 거의 무적으로 암송하게 한 명문이다. 『釋題』의 다음 구절은,

쫘나라에서 微言(60권 화엄경)을 번역할 때는 두 사람의 童子가 상서를 나타내고 唐나라에서 至教(80권 화엄경)를 번역하자 甘露가 상서를 나타내어 가만히 호위함이 昭然하고 친히 御筆을 내렸으며 論이 서역에서 이루어지자 大地가 진동하고 광명이 흘러 나왔으며 뜻이 清涼에 사무치면 感이 통하여 현묘한 도리를 깨달았으며 그 書寫함에는 경이 五色을 빛내고 닳나무 향기가 사방에 달하며 겨울에 접시꽃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상서로운 새가 꽃을 머금어 날았으며 독송을 하면 묘연하게 허공을 밟으며 밝기가 거울에 임하는 것과 같아 매양 사리를 머금으며 마침내 神僧을 만나고 땅에서 솟아나 금색의 몸을 나타내고 하늘에 올라 수라의 싸움을 그치게 했구나! 觀行을 하면 無生의 도리를 증득하고 偈로써 찬탄함이 허공에 늘어서고 海神이 들음에 때맞추어 비가 내리고 天童이 맞이함에 大水가 넘치며 강설하면 중국어와 범어의 韻을 통하고 人天이 함께 따르고 洪水가 흐름을 그치고 神光이 집으로 들어오니 참으로 한 문장의 미묘함이 뜻을 섭하여 남김이 없구나! 그러므로 一偈의 功이 능히 지옥을 파하고 盥掌 물이 오히려 生靈을 건질 새 그러므로 독송하고 생각하고 닦으면 功이 種智와 가지런함이다. 宿生에 무슨 행운으로 이 글을 만나게 됨을 감사하노라. 그 事跡의 昭彰은 記傳에 갖추어 있다.

自晉譯微言則雙童現瑞. 唐翻至教則甘露呈祥. 冥衛昭然. 親紆御筆. 論成西域則地震光流. 志徹清涼則感通玄悟. 其書寫也則經輝五色. 栴香四達. 冬葵發艷. 瑞鳥啣華. 讀誦則渺然履空. 煥若臨鏡. 每含舍利. 適會神僧. 湧地現金色之身. 昇天止修羅之陣. 觀行無生入證. 偈讚排空. 海神聽而時雨滂流. 天童迎而大水瀟漫. 講說則華梵通韻. 人天共遶. 洪水斷流. 神光入宇. 良以一文之妙. 攝義無遺. 一偈之功. 能破地獄. 盥掌之水. 尙拯生靈. 讀誦思修. 功齊種智. 宿生何幸.

18) 『韓佛全』 7. p.295. 하 ~6. 중



感遇斯文。其事跡昭彰。備於記傳。<sup>19)</sup>

라고 기술하고 있다. 위에서 직역한 문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곳이 많지만, 징관의 『華嚴經疏演義鈔』卷第十五에서는 이 문장의 구절 구절에 대한 고사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대충 설명하면.

“뜰 나라에서 微言(60권 화엄경)을 번역할 때는 두 사람의 童子가 상서를 나타내고 晉譯微言則雙童現瑞”라는 말은 道場寺에서 晉譯 60권 『화엄경』을 번역할 때 堂 앞의 연못에서 두 사람의 靑衣童子가 못 속에서 나타나 좁과 꽃으로 공양 올리는 것을 온 대중이 다 보았으니, 이것은 이 경이 오랫동안 용궁에 있었기 때문에 龍王이 이 경이 번역된 것을 기뻐하여 龍子를 보내어 물자를 공급하고 시봉을 들게 하였다는 고사이며, “唐 나라에서 至教(80권 『화엄경』)를 번역하자 甘露가 상서를 나타내어 唐翻至教則甘露呈祥”라는 말은 唐나라 때에 80권 『화엄경』을 번역할 적에는 당시 則天帝께서 온 하늘에 甘露가 내리는 꿈을 꾸는 등 많은 祥瑞가 있었다는 뜻이고, “가만히 호위함이 昭然하고 冥衛昭然”라는 말은 晉經을 번역할 적에 善神이 좌우에서 호위하여 준 것을 말함이고, “친히 御筆을 내렸으며 親紆御筆”라는 것은 80권 화엄경을 번역할 때 則天帝께서 친히 서문을 지어 주었음을 말함이다.

“論이 서역에서 이루어지자 大地가 진동하고 광명이 흘러 나왔으며 論成西域則地震光流”라고 한 것은 西域에서 世親菩薩이 『화엄경』을 해석하는 『十地論』을 짓자 大地가 진동하고 광명이 뻗었음을 말함이고 “뜻이 淸涼에 사무치면 感이 통하여 현묘한 도리를 깨달았으며 志徹淸涼則感通玄悟라는 말은 北齊의 劉謙之는 환관으로서 남자의 모습을 갖추지 못함을 한탄하고 또 자기가 모시던 왕자가 문수보살 앞에서 도를 구하기 위하여 몸을 태워 공양 올리는 것을 보고 『화엄경』 한 질을 갖고 오대산에 들어가 정근하며 禮懺하고 독송하면서 마음으로 문수보살의 가피를 빌며 양식을 끊고 물만 마시기를 20여 일 하였더니 얼굴은 비록 憔悴하게 되었으나 정성은 더욱 간절하더니 홀연히 수업이 생겨나고 대장부의 모습을 회복함을 느꼈다

이어 마음의 문이 열려 『화엄론』 60권을 지음으로써 『화엄경』을 크게 유포시켰으며 後魏의 승려인 靈辨은 『화엄경』을 정대하고 淸涼山에 들어가 문수보살의 가호를 비는 1년 동안에 발이 터져 피가 흐르고 살이 닳아 뼈가 드러날 지경에 이르러 홀연히 공중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너는 그란 그치고 다만 이 경전을 사유하라.’고 하였다. 이에 경전을 펼치자 홀연히 커다란 깨달음을 얻고 『화엄론』 100권을 지었음을 말한다.

“그 書寫함에는 경이 五色을 빛내고 其書寫也則經輝五色”라는 말은 後魏의 安豐郡王 延明

19) 『韓佛全』 7. p.296.중 ~ 하

과 中山王 元熙는 모두 宗室의 英靈으로서 圓宗에 귀의하여 일찍이 香을 燭에 썩어 『화엄경』 100부와 金字 『화엄경』 1부를 필사하되 모두 5香으로 광주리를 만들고 7寶로써 函을 만들어 고요한 밤과 이른 아침에 맑게 齋를 올리고 道를 행하니 五色 神光을 놓아 臺宇를 흰히 비추는 것을 대중이 모두 보고 이 일로 인하여 發心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음을 말한다.

“닥나무 향기가 사방에 달하며 楷香四達”라는 말은 德元이라는 스님이 『화엄경』을 독송하여 깨달음을 얻고 깨끗한 정원을 마련하여 닥나무를 심고 사이사이에 향초와 아름다운 꽃을 심어 정원에 들어갈 때마다 반드시 목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香水로서 물을 주더니 닥나무가 태어난 지 3년 만에 향기가 사방에 퍼지고 뒤에 별도로 깨끗한 방을 지어 寫經을 하였더니 글자마다 광명이 나와 집을 밝게 비추고 神人이 나타나 호위하고 푸른 옷을 입은 동자가 나타나 하늘꽃으로 공양 올렸다는 古事를 말함이다.

“겨울 접시꽃이 아름다움을 말하다 冬葵發艷”라는 말은 則天皇帝 때에 鄧元爽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갑자기 죽었다가 깨어나 ‘지승사자가 爽을 잡으려 한다.’는 말을 듣고 상이 두려워 『화엄경』을 寫經하여 마치자 어머니의 무덤에 심어 놓았던 접시꽃(蜀葵)이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어나 무성하였다. 이 소문을 들은 측천황제가 孝子門을 세워 주었다고 하는 고사를 말함.

“상서로운 새가 꽃을 머금어 날았으며 瑞鳥啣華”라는 것은 法誠이라는 스님이 南嶺에 華嚴堂을 짓고 7처 9회의 像을 모시고 수행하는데 弘文館 工書 張靜敬이 찾아 와서 거기서 정성껏 사경하고 법성스님도 스스로 향로를 잡고 지극한 정성으로 공양을 올렸더니 뒷날 이상하게 생긴 상서로운 새가 꽃을 머금고 방에 들어와 공양을 올리길 거듭하더니 경이 완성된 다음에 지극한 마음으로 독경한 사람은 가피를 입은 사람이 많았다.

“독송을 하면 묘연하게 허공을 밟으며 讀誦則渺然履空”라는 말은 隋나라 禪定道場의 慧悟라는 스님은 일찍이 한 명의 스님과 함께 終南山에 들어가 『화엄경』을 독송하고 다른 스님은 『열반경』을 독송하였다. 어느 날 홀연히 한 사람이 나타나 한 분 스님을 供養 올리겠다고 청하였다. 서로 사양했더니 그 사람이 ‘화엄법사’를 청하였다. 慧悟스님이 따라갔더니 山神이 千名の 羅漢을 청하여 공양을 올리는데 모두 화엄법사를 상석으로 모셨다. 공양이 끝나자 모두 허공을 날아 돌아갔다. 산신이 한 동자를 불러 모시게 하니 동자가 법사의 입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신선이 되어 돌아와 그 벗과 헤어져 경을 갖고 묘연히 사라졌다는 고사를 말한 것이다.

“밝기가 거울에 임하는 것과 같았다. 煥若臨鏡”라는 말은 辨才라는 스님이 어려서 靈裕법사를 섬기며 화엄으로 業을 삼았으나 깨달지 못하다가 계율을 엄히 지키고 香函을 만들어 경을 담고 머리에 이고 行道하기 3년 만에 꿈속에서 보현보살의 가르침을 받고 홀연히 경문을 의뢰 수 있게 되고 이치가 밝게 드러남이 거울에 임하는 것과 같이 되었다는 고사를 말함.

“매양 사리를 머금게 되며 每畜舍利”라는 말은 安定사람 樊玄智는 일찍이 출가하여 杜順和尚에게 귀의하였다. 두순스님의 지시에 따라 『화엄경』을 외우며 보현행을 닦았다. 誦經할 때

마다 자주 입속에서 사리를 얻어 도합 數百粒에 이르렀음을 말함.

“마침내 神僧을 만나고 適會神僧”라는 말은 唐의 貞觀(627~649) 초기에 苑律師가 행각 길에 어떤 여관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마침 괴이하게 생긴 스님이 남루한 옷을 입고 옆방에 머물며 마음껏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었다. 계율이 청정한 율사는 이를 천하게 여겼다. 그러나 그 스님은 식사를 마치자 양치하고 문을 닫고 『화엄경』을 외우기 시작하였다. 율사가 귀를 기울이고 들으니 五更이 못되어 6秩이나 읽었다. 율사가 깊이 누우쳐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으나 그가 간 곳을 알지 못하였다는 고사를 말함.

“땅에서 솟아나 금색의 몸을 나타내고 湧地現金色之身”라는 말은 崇福寺 스님인 慧祐법사는 계행이 청정하고 智儼법사를 섬기며 맑은 아침과 고요한 밤에 오로지 『화엄경』 특히 출현 품을 독송하더니 뒤에 홀연히 10여 보살이 땅에서 솟아 나와 金色의 몸을 나타내고 光明을 놓으며 蓮華座에 앉아 합장하고 이 품을 듣다가 독경을 마치자 문득 사라졌다는 고사를 말함.

“하늘에 올라 수라의 싸움을 그치게 하였도다 昇天止修羅之陣”라는 말은 于闐國 沙彌인 般若彌伽는 계행이 청정하고 『화엄경』을 독송하는 것으로 일과를 삼더니 홀연히 어떤 사람이 합장하고 은근하게 말하기를 ‘모든 하늘이 제자로 하여금 법사를 모셔오라고 하니 청하건대 법사는 눈을 감아 주십시오.’ 하였다. 드디어 天上에 도착하니 天主가 꿰어앉아 청하여 말하길 ‘諸天이 지금 修羅와 싸워오고 있는데 자주 패배하여 이제 법사를 청하여 『화엄경』을 외워 범력의 가피를 바라고자 합니다’ 그의 요청대로 하늘 수레(天寶輅)를 타고 하늘의 깃발을 잡고 마음으로 『화엄경』을 생각하였다. 하늘 군대가 적을 물리치니 修羅가 보고 홀연히 무너졌다. 잠깐 사이에 되돌아왔는데 몸에는 天香의 향기가 배어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았다는 고사를 말한다.

“觀行을 하면 無生의 도리를 증득하고 偈로써 찬탄함이 허공에 늘어서고 觀行無生入證. 偈讚排空”라는 말은 解脫和尚이 五臺山 서남쪽 佛光寺에 精舍를 세운 뒤 『화엄경』을 읽고 경에 의지하여 佛光觀을 짓고 자주 中臺의 동남 花園의 북쪽 옛 大學寺에 가서 문수보살을 찾아 가르침을 구하니 문수보살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찌 나에게 예배하려 하느냐. 스스로 누워 치며 경책하면 반드시 깨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뒷날 無生의 도리를 깨달아 法喜를 얻고 자기만 잘되려고 노력한 것을 개탄하며 널리 중생을 제도하기를 발원하고 부처님이 이 마음을 증명하여 주시길 청하였다. 이에 부처님이 나타나 계승을 일러줌을 느꼈다. ‘모든 부처님의 적멸하여 깊고 깊은 법을 광범에 수행하여 이제 겨우 얻었구나. 만약 능히 이 법안을 열어 밝히면 일체 모든 부처가 다 隨喜하리라’고. 해탈이 다시 공중을 향하여 ‘적멸한 법을 어떻게 설하여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부처가 자취를 감추고 소리만 들리기를 ‘方便智로서 등불을 삼아 마음 경계를 비추어 보라. 진실법을 궁구하고자 한다면 일체에 보는 것이 없게 하라.’ 라고 하였다. 또 本州의 도둑이 스님을 초청하여 계를 받고 스님을 전송할 적에 城의 동쪽에 이르러 날이 저물자 焚香할 것을 생각하자 공중에서 소리가 들리길 ‘합장하는 것

이 꽃이고 몸이 공양구이며 착한 마음이 진실한 향이요 찬탄함이 향 연기가 퍼지는 것이니 부처는 이 향내를 맡고 소리를 찾아와 제도하느니라. 대중은 부지런히 경진하여 마침내 서로 의심치 말라.'라고 하였다는 고사를 말함.

"海神이 들음에 때맞추어 비가 내리고 海神聽而時雨滂流"라는 말은 道英이라는 스님은 18세 때에 부모의 명령에 의하여 결혼하여 5년간이나 동거하였으나 서로 몸을 부딪치지 않다가 并州 거법사에 가서 『화엄경』을 듣고 머리를 깎은 다음 大行山 栢梯寺에서 止觀을 닦았다. 때마침 가뭄이 심하여 『화엄경』을 강의하여 비 내리길 기원하였더니 두 노인이 두 시자를 데리고 항상 법문을 들었다. 도영스님이 괴이하게 여겨 물어보니 '우리들은 海神으로서 이 경을 좋아하여 법문을 듣는다.'라고 말했다. 도영스님이 '내가 경을 강의하여 주었으니 비를 내리게 하여 달라'라고 하였더니 두 동자가 곧 비를 내렸다고 하는 고사를 말함.

"天童이 맞이함에 大水가 넘치며 天童迎而大水瀾漫"라는 말은 隋나라 때에 靈幹스님은 衍法師을 의지하여 출가하여 18세에 『화엄경』을 강의하고 講場에서는 證義도 하였다. 뒤에 병을 얻어 죽었다가 며칠 만에 깨어나서 말하기를, 도솔천에 올라가 休와 遠 二法師을 만났더니 모두 蓮花臺에 앉았는데 세상에 없는 광명을 놓으며 '나를 위하여 나의 제자들에게 뒤에 다 여기에 태어날 것이다.'라고 말하라고 하였다. 靈幹스님의 뜻은 『화엄경』을 받들어 華藏觀과 彌勒天宮觀을 지었으므로 병이 위독하여 눈에 보인 것이 옛적에 본 것인 듯 하였다. 沙門 童眞이 질문하자 답하기를 '조금 전에 도솔천궁에 갔지만 하늘의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하고 마침내 운회에 떨어질 것이지만 蓮花藏이 가고 싶은 곳이다.'라고 말하고는 기절하였다가 깨어나

다시 '큰물이 가득하고 수레와 같이 크다란 꽃 위에 앉았으니 소원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눈을 감았다.

"강설하면 중국말과 범어의 운을 통한다 講說則華梵通韻"라는 것은 宋나라의 求那跋陀羅는 중국말로 功德賢이라고 한다. 中天竺사람으로 처음 五明의 여러 논서를 배워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지만 뒤에 불법을 숭상하여 대·소승을 두루 배웠다. 元嘉 12년(435) 廣州에 이르자 太祖가 사자를 보내 영접하였다. 南譙王義宣 등이 『화엄경』을 강의하여 달라고 청하였다. 법사가 중국 말 모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朝夕으로 예참하며 觀音菩薩의 가피를 빌었다. 드디어 어느 날 꿈에 어떤 사람이 칼을 잡고 한 사람의 머리를 갖고 와서 말하기를 '무엇을 근심하느냐?' 하여 앞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더니 머리를 베어내고 새 머리로 바꾼 다음 '아프지 않느냐?'고 물었다. '아프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한 뒤 꿈에서 깨어나자 중국 말을 할 수 있게 되어 『화엄경』을 수십 번이나 강의하였다.

"人天이 함께 따르고 人天共遵"라는 말은 魏의 勒那摩提는 중국 말로 寶意라고 하는데 一億 偈經을 외우고 중국 말이 능통하여 황제가 매양 『화엄경』을 강의하게 하였는데 하늘에서도 사람을 보내 설법을 청하였다는 고사를 말함.

“洪水가 흐름을 그치고 洪水斷流”라는 말은 杜順和尚은 京兆 杜陵의 사람으로 操行이 高潔하고 배움에는 일정한 스승이 없이 華嚴으로 業을 삼았다. 일찍이 산중에 살며 접시꽃을 심으려 하니 땅에 벌레가 많았다. 이에 경계를 지어놓으니 벌레들이 모두 경계 밖으로 나갔다. 이후 발갈이를 하여도 조금도 생명을 해치는 일이 없었고 태어나면서 병어린 사람이 스님이 부르자 말을 할 수 있었고 南山에 가서 洪水를 만났을 때에 ‘그치라’ 함에 홍수가 그쳤다고 하는 고사를 말함.

“神光이 집으로 들어오다 神光入宇”라는 말은 賢首法藏을 잉태하였을 때에 기이한 빛을 보았으며 또 법장이 雲華寺에서 智儼에게서 『화엄경』을 들을 때에 한밤중에 神光이 정원을 밝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고사를 말함.

“참으로 한 문장의 미묘함이 뜻을 섭하여 남김이 없도다. 良以一文之妙. 攝義無遺”라는 말은 지극히 원만하고 미묘함을 말한 것이니 그러므로 보현보살이 善財에게 말하기를 ‘나의 法海 가운데 한 문장 한 글귀라도 전륜왕위를 버리고 구하여 얻지 않은 것이 없으며 일체 소유를 버리고 구하여 얻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였으니 이이라는 것은 一切의 一人 까닭이며 性에 칭합한 一人 까닭이다

“그러므로 한 偈頌의 功이 능히 지옥을 파하고 故一偈之功. 能破地獄”라는 말은 王明幹이라는 사람이 지옥 문 앞까지 끌려갔으나 지장보살을 만나 ‘만약 사람이 三世一切의 부처를 구하여 알고자 한다면 응당 이와 같이 관하라. 마음이 모든 부처를 짓는다.’라고 일러주면서 이 계승만 의우면 地獄苦를 면할 수 있으리라고 말함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여 지옥고를 벗어났다는 고사를 말함.

“盥掌의 물이 오히려 生靈을 건짐 盥掌之水. 尚拯生靈”이라는 말은 僧伽彌多羅라는 스님이 淸涼山에 가서 스님들이 『화엄경』을 독송하는 것을 보고 감탄하여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독송하고 손을 씻어 그 물을 버릴 때에 물에 젖어 죽은 벌레들은 모두 天上에 태어난다.’고 말했다”는 고사를 말한다.

“독송하고 생각하며 닦으면 공이 증지와 가지런하다 讀誦思修 功齊種智”라는 말은 『十地經』에 金剛藏菩薩이 “이 법문을 들으면 一切智가 모은 복덕과 같다.”고 하였으니 들은 공덕만 하여도 種智와 같다면 讀誦하고 생각하며 닦은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sup>20)</sup>

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이 단락은 『華嚴玄談』의 大段十科 가운데 第八 傳譯感通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雪峯은 感通에 해당된 부분을 인용하고 있다. 이것은 본래 澄觀이 法藏의 『華嚴經傳記』를 보고 저술한 것이지만 雪峯은 “其事跡昭彰. 備於記傳 (『현담』에서는 ‘傳記’라 함)이라는 말까지 기술하여 澄觀이 華嚴經을 번역하거나 주석서를 짓거나 독송하고 생각으로 수행하며 寫經한 사람들의 事跡이 華嚴經傳記에 갖추어 기술되어 있다고 말한 것까지

20) 大正藏 36, pp.113. 하 ~ 116. 하

그대로 옮겨놓고 있다. 즉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기까지의 『釋題』는 澄觀 著述의 짜깁기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는 節을 바꾸어 『釋題』와 澄觀 저술의 異同을 도표로서 비교하여 보기로 하겠다.

### Ⅲ. 澄觀 著作物과의 比較表

비교 방법은 圖表를 좌우 양쪽으로 갈라서 왼쪽은 『釋題』를 원문대로 수록하고, 오른쪽은 여기에 상응하는 澄觀의 저술을 기록한 다음, 字句의 異同을 주기로 표시하기로 하겠다. 다만 『釋題』의 첫 부분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則天皇帝의 80권본 『華嚴經』 序文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玄談』에서 이를 수록하고 『演義鈔』에서 이것을 해석했으므로 함께 표시하기로 하였다.

雪岑의 『華嚴釋題』	則天皇帝 『華嚴經序』
大方廣佛華嚴經者. 斯乃諸佛之密藏. 如來之性海. 視之者莫識其 <sup>①</sup> 旨歸. 攝之者. 罕測其涯際. 一宗략一添性海之波瀾. 廓法界之疆域. 大乘頓教. 普被於無窮. 方廣眞筌. 遐該於有識. 豈謂後五百歲. 忽奉金口之言. 娑婆境中. 俄啓珠函之秘. <sup>②</sup> 無德而稱者. 其唯法界歟.	大方廣佛華嚴經者. 斯乃諸佛之密藏. 如來之性海. 視之者莫識其 <sup>③</sup> 指歸. 攝之者. 罕測其涯際. 一宗략一添性海之波瀾. 廓法界之疆域. 大乘頓教. 普被於無窮. 方廣眞筌. 遐該於有識. 豈謂後五百歲. 忽奉金口之言. 娑婆境中. 俄啓珠函之秘. (大正藏 10. 1. 상~중)

比較表 1

- ① 大正藏 수록본의 『華嚴經序』와 『현담』 卷第8에는 '指' 로 기록 됨.
- ② “無德而稱者. 其唯法界歟”는 雪岑이 追加한 句節이다. 參考로 則天皇帝의 『華嚴經序』에는 “無得而稱者 其唯大覺歟”라는 구절이 있고, 澄觀의 『往復序』에는 “含衆妙而有餘者. 其唯法界歟”라는 구절이 있다.

比較表 2

- ① '上' 이라는 憲宗皇帝를 말한다. 이 단락은 元和 5년(820)에 현종이 華嚴法界에 대해서 질문하자 澄觀이 대답한 내용이다.
- ② '身心' 두 글자는 『通論』 卷第21에는 없는 글자이지만 (新纂 『卍續藏經』 75, p.210.

하) 여러 판본의 『華嚴經玄談』에는 ‘身心’의 두 글자가 기록되어 있다.

③ 而는 『通論』 卷第21에는 역시 而 로 되어 있으나 新文豐版의 『현담』에는 ‘以’로 기록됨

雪岑의 『華嚴釋題』	淸涼 著書 『上』 <sup>①</sup> 問華嚴法界』
<p>法界者. 一切衆生之 <sup>②</sup>身心本體也. 從本以來. 靈明廓徹. 廣大虛寂. 唯一眞境而已. 無有形貌而森羅大千. 無有邊際而含容萬有. 昭昭於心目之間而相不可觀. 晃晃於色塵之內而理不可分. 非徹法之慧目. 離念之明智. 不能見自心. 如此之靈通也. 故世尊. 初成正覺. 歎曰奇哉. 我今普見一切衆生. 具有如來智慧德相. 但以妄想執着. <sup>③</sup>而不能證得.</p>	<p>法界者. 一切衆生之 <sup>②</sup>本體也. 從本以來. 靈明廓徹. 廣大虛寂. 唯一眞境而已. 無有形貌而森羅大千. 無有邊際而含容萬有. 昭昭於心目之間而相不可觀. 晃晃於色塵之內而理不可分. 非徹法之慧目. 離念之明智. 不能見自心. 如此之靈通也. 故世尊. 初成正覺. 歎曰奇哉. 我今普見一切衆生. 具有如來智慧德相. 但以妄想執着. <sup>③</sup>而不能證得</p> <p><u>於是 稱法界性 說華嚴經 全以真空 簡情 事理融攝 周遍凝寂 帝一天縱聖明 一聽玄談 廓然自得</u></p> <p><u>於是 粘有司 備禮鑄印 遷國師 統冠天下 繼徒號僧統淸涼 國師</u></p>

比較表 3

① 이 단락은 『玄談』에는 『詔淸涼講華嚴經題』 제목을 붙이고 있지만 원문 가운데 “황제가 화엄의 종지를 개시하도록 명령하였다. 帝命開示華嚴宗旨”라는 구절이 있다. 雪岑은 자기 말로 바꾸어 ‘華嚴의 宗旨를 開示함에 세 번 다시 어리석음을 다한다’라는 뜻으로

雪岑의 『華嚴釋題』	淸涼 著書 『詔淸 講華嚴經題』
<p><sup>①</sup>開示華嚴宗旨 一중략一 三復竭愚. 露滴天<sup>②</sup>池. 喜含百川之味. <sup>③</sup>塵培華岳. 無增萬仞之高. 極虛空之可度. 體無邊涯. 大也. 竭滄溟而可飲. 法門無盡. 方也. 碎塵刹而可數. 用無能測. 廣也. 離覺所覺. 朗萬法之幽邃. 佛也. 芬敷萬行. 榮<sup>④</sup>輝衆德. 華也. 圓<sup>⑤</sup>慈行德. 飾彼十身. 嚴也. 貫攝玄微. 以成真光之彩. 經也.</p>	<p><sup>①</sup>開示華嚴宗旨. 一중략一 三復竭愚 露滴天<sup>②</sup>地. 喜含百川之味. <sup>③</sup>塵培華嶽. 無增萬仞之高. 極虛空之可度. 體無邊涯. 大也. 竭滄溟而可飲. 法門無盡. 方也. 碎塵刹而可數. 用無能測. 廣也. 離覺所覺. 朗萬法之幽邃. 佛也. 芬敷萬行. 榮<sup>④</sup>曜衆德. 華也. 圓<sup>⑤</sup>茲行德. 飾彼十身. 嚴也. 貫攝玄微. 以成真光之彩. 經也. (新纂正續藏經 75. 203. 중 ~ 하)</p>

활용하고 있다. 比較表 3과 다음의 비교표 4는 앞 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四十華嚴』을 해석한 『貞元疏』의 序文이기도 하지만 『通論』은 이 법문의 全文을 수록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編年體의 佛敎史書들은 이것을 요약하여 실거나 그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 ② '池'는 『通論』 第19에서는 '地'로 기록하였으나 他本에서는 '池'로 기록됨.
- ③ '塵培華岳'은 『通論』 第19에서는 '塵培華嶽'으로 기록되었으나 『貞元疏』는 '塵陪華嶽'으로 기록되었고 『玄談』의 여러 판본에서 모두 '塵培華岳'으로 기록됨
- ④ '輝'는 『貞元疏』와 『通論』 및 『玄談』의 여러 판본에서 모두 '耀'로 기록되었으나 뜻은 동일하다.
- ⑤ '慈'는 『貞元疏』와 『通論』 및 『玄談』의 여러 판본에서 모두 '茲'로 기록되었다. '慈'가 뜻은 좋지만 문장의 흐름으로 보아 '茲'가 부드럽다.

比較表 4

雪峯의 『華嚴釋題』	清涼 著書 『詔清涼講華嚴宗旨』
<p>大哉眞界. 萬法資始<sup>①</sup>歟. 包空有而絕相. 入言象而無迹. 妙有得之而不有. 眞空得之而不空. 生滅得之而眞常. 緣起得之而交映. 我佛得之. 妙踐眞覺. 廓淨塵習. 寂寥於萬化之域. 動用於一虛之中. 融身刹以相<sup>②</sup>含. 流聲光而遐燭. 我皇得之. 靈鑒虛極—중략—不有太虛. 曷展無涯之照. 不有眞界. 豈淨等空之心—중략—諸佛心內. 衆生. 新新作佛. 衆生心中. 諸佛. 念念證眞. —(動千變而非多. 事理交涉而兩<sup>③</sup>忘. <sup>④</sup>性相融通而無盡)— 一字法門. 海墨書而不盡. —<sup>⑤</sup>毫之善. 空界盡而無窮. 語其定也. <sup>⑥</sup>冥一如於無心. <sup>⑦</sup>卽萬法動而常寂. 海湛眞智. 光含性空. 星羅法身. 影落水. 水. 圓音. 非<sup>⑧</sup>叩而長演. 果海. 離念而心傳. 萬行. 忘照而齊修.</p>	<p>大哉眞界. 萬法資始.<sup>①</sup> 包空有而絕相. 入言象而無迹. 妙有得之而不有. 眞空得之而不空. 生滅得之而眞常. 緣起得之而交映. 我佛得之. 妙踐眞覺. 廓淨塵習. 寂寥於萬化之域. 動用於一虛之中. 融身刹以相<sup>②</sup>含. 流聲光而遐燭. 我皇得之. 靈鑒虛極—중략—不有太虛. 曷展無涯之照. 不有眞界. 豈淨等空之心—중략—諸佛心內. 衆生. 新新作佛. 衆生心中. 諸佛. 念念證眞. —(動千變而非多. 事理交涉而兩忘.<sup>③</sup> 性相融通而無盡)--- 一字法門. 海墨書而不盡. —<sup>④</sup>毫之善. 空界盡而無窮. 語其定也. <sup>⑤</sup>冥一如於無心<sup>⑥</sup>. 卽萬法動而常寂. 海湛眞智. 光含性空. 星羅法身. 影落水. 水. 圓音. 非<sup>⑧</sup>叩而長演. 果海. 離念而心傳. 萬行. 忘照而齊修. (新纂 『卍續藏經』 5, p.204 중~하)</p>

- ① '歟'는 아무 판본에도 없는 글자이다. 아마 雪峯이 추가하여 좀더 감정을 나타내게 한 글자인 것 같다.
- ② '含'은 『韓國佛敎全書』 수록본은 '含'으로 기록되었으나 그 저본인 조선시대의 목판본은 '含'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인쇄 과정에서 생긴 실수인 것 같다.
- ③ '忘'은 모든 판본에 '忘'으로 기록되었으나 『貞元疏』의 서문에는 '亡'(新纂, 『卍續藏』,



- 經 5, 48 중)으로 기록 되었음.
- ④ '性相融通' 은 『貞元疏』의 서문은 "以性融相" (新纂『卍續藏』經 5, p.48.중)이라고 하였으나 『通論』 第19나 『淸涼志』나 『玄談』은 모두 "性相融通"이라고 하였다.
  - ⑤ '毛' 는 淸涼 저서와 모든 史書에서는 모두 '毫' 라고 하였다.
  - ⑥ '冥一如於無心' 은 『貞元疏』의 서문은 '冥一如之無心' (新纂『卍續藏』 5, p.48. 중)이라고 하고 『通論』은 '冥一心於無心' (新纂『卍續藏』, 75, p.204. 하)이라고 하였지만 다른 판본에서는 모두 '冥一如於無心' 이라고 기록됨.
  - ⑦ '卽萬法動而常寂' 은 여러 板本の 『玄談』에는 동일하게 '卽萬法動而常寂' 이라고 하였지만 『通論』에서는 '卽萬動而常寂' 이라 하고 『貞元疏』에서는 '卽萬動之恒寂' (新纂『卍續藏』 5, 48.중)이라고 하였다.
  - ⑧ '叩' 『貞元疏』의 서문이나 각종 판본의 『玄談』에 모두 '扣' 기록하고 『通論』 卷第19에서는 '叩' (新纂『卍續藏』 75, p.204. 하. 『卍續藏』, 史傳部 20, p.614. 하)로 기록하였으나 뜻은 동일하다.

比較表 5

雪岑의 {華嚴釋題}	淸涼 著書『華嚴經疏』 卷第一(대정장 35, p.503. 상~중)
<p>往復無際。動靜一源。含衆妙而有餘。超言思而迥出者。其唯法界歟。剖裂玄微。昭廓心境。窮理盡性。徹果該因。汪洋冲融。廣大悉備者。其唯大方廣佛華嚴經焉。故我世尊。十身初滿。正覺始成。乘願行以彌綸。混虛空爲體性。富有萬德。蕩無纖塵。湛智海之澄波。虛含萬象。<sup>㉑</sup>皎性空之滿月。頓落百川。不起樹王。羅七處於法界。無違後際。暢九會於初成。盡宏廓之幽宗。被難思之海會。圓音落落。該十刹而頓周。主伴重重。極十方而齊唱。雖空絕<sup>㉒</sup>迹。而義天之星象燦然。湛湛亡言。而教海之波爛浩<sup>㉓</sup>汗。若乃千門潛注。與衆典爲洪源。萬德交歸。攝<sup>㉔</sup>羣經爲眷屬。其爲旨也。冥真體於萬化之域。顯德相於重玄之門。用繁興<sup>㉕</sup>而恒如。智周鑑而常靜。真妄交徹。卽凡心而見佛心。事理<sup>㉖</sup>雙修。依本智而求</p>	<p>往復無際。動靜一源。含衆妙而有餘。超言思而迥出者。其唯法界歟。剖裂玄微。昭廓心境。窮理盡性。徹果該因。汪洋冲融。廣大悉備者。其唯大方廣佛華嚴經焉。故我世尊。十身初滿。正覺始成。乘願行以彌綸。混虛空爲體性。富有萬德。蕩無纖塵。湛智海之澄波。虛含萬象。<sup>㉑</sup>皎性空之滿月。頓落百川。不起樹王。羅七處於法界。無違後際。暢九會於初成。盡宏廓之幽宗。被難思之海會。圓音落落。該十刹而頓周。主伴重重。極十方而齊唱。雖空絕<sup>㉒</sup>跡。而義天之星象燦然。湛湛亡言。而教海之波爛浩<sup>㉓</sup>辭。若乃千門潛注。與衆典爲洪源。萬德交歸。攝<sup>㉔</sup>羣經爲眷屬。其爲旨也。冥真體於萬化之域。顯德相於重玄之門。用繁興<sup>㉕</sup>以恒如。智周鑑而常靜。真妄交徹。卽凡心而見佛心。事理<sup>㉖</sup>雙修。</p>

佛智. 理隨事變. 則一多緣起之無邊. 事得理融. 則千差涉入而無<sup>①</sup>碍. 故得十身歷然而相作. 六位不亂而更收. 廣大卽入於無間. 塵毛包納而無外. 炳然齊現. 猶彼芥瓶. 具足同時. 方之海滴. 一多無<sup>②</sup>碍. 等虛<sup>③</sup>空之千<sup>④</sup>光. 隱顯俱成. 似秋空之片月. 重重皎映. 若帝網之垂珠. 念念圓融. 類夕夢之經世. 法門重疊. 若雲起長空. 萬行芬披. 比<sup>⑤</sup>花開錦上. 若夫高不可仰. 則積行菩薩曝<sup>⑥</sup>鱗於龍門. 深不可窺. 則上德聲聞杜視聽於嘉會. 見聞爲種. 八難超十地之階. 解行在躬. 一生圓曠劫之果. <sup>⑦</sup>獅子奮迅. 衆海頓證於林中. 象王迴旋. 六<sup>⑧</sup>千道成於言下. 啓明東廟. 智滿不異於初心. 寄位南心. 因圓不逾於毛孔. 剖微塵之經卷. 則念念果成. 盡衆生之願門. 則塵塵行滿. 眞可謂常恒之妙說. 通方之洪規. 稱性之極談. 一乘之要軌也. 尋斯玄旨. 却覽餘經. 其猶呆日麗天. 奪衆景之耀. 須彌橫海. 落群峯之高. 是以菩薩搜秘於龍宮. 大賢闡揚於東夏. 顧惟正法之代. 尙匿清輝. 幸哉像季之時. 偶斯玄化. 況逢聖主. 得在靈山. <sup>⑨</sup>曷思幽宗. 豈無慶躍.

依本智而求佛智. 理隨事變. 則一多緣起之無邊. 事得理融. 則千差涉入而無<sup>①</sup>碍. 故得十身歷然而相作. 六位不亂而更收. 廣大卽入於無間. 塵毛包納而無外. 炳然齊現. 猶彼芥瓶. 具足同時. 方之海滴. 一多無<sup>②</sup>碍. 等虛<sup>③</sup>空之千<sup>④</sup>燈. 隱顯俱成. 似秋空之片月. 重重皎映. 若帝網之垂珠. 念念圓融. 類夕夢之經世. 法門重疊. 若雲起長空. 萬行芬披. 比<sup>⑤</sup>華開錦上. 若夫高不可仰. 則積行菩薩曝<sup>⑥</sup>鱗於龍門. 深不可聞. 則上德聲聞杜視聽於嘉會. 見聞爲種. 八難超十地之階. 解行在躬. 一生圓曠劫之果. <sup>⑦</sup>獅子奮迅. 衆海頓證於林中. 象王迴旋. 六<sup>⑧</sup>千道成於言下. 啓明東廟. 智滿不異於初心. 寄位南心. 因圓不逾於毛孔. 剖微塵之經卷. 則念念果成. 盡衆生之願門. 則塵塵行滿. 眞可謂常恒之妙說. 通方之洪規. 稱性之極談. 一乘之要軌也. 尋斯玄旨. 却覽餘經. 其猶呆日麗天. 奪衆景之耀. 須彌橫海. 落群峯之高. 是以菩薩搜秘於龍宮. 大賢闡揚於東夏. 顧惟正法之代. 尙匿清輝. 幸哉像季之時. 偶斯玄化. 況逢聖主. 得在靈山. <sup>⑨</sup>曷思幽宗. 豈無慶躍. (『大正藏』35. p.503. 상~중)

- ① 碍'는 『卍續藏』과 新文豐版과 한국판의 모든 『玄談』이 '碍'로 기록하였으나 뜻은 동일하다.
- ② 迹'은 韓國版은 '跡'으로, 新文豐版은 '蹟'으로, 『卍續藏』은 '迹'으로 기록하였으나 뜻은 동일하다.
- ③ 汗'은 『卍續藏』과 『華嚴釋題』는 '汗'으로, 韓國版과 新文豐版은 '汗'으로 기록하였으나 모두 '뺨다'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 ④ 羣'은 韓國版과 新文豐版은 '羣'으로, 『卍續藏』은 '群'으로 기록하였으나 뜻은 동일하다.
- ⑤ 而'는 『玄談』의 여러 판본이 모두 동일하게 '以'로 기록함.
- ⑥ 𩇛' 『玄談』의 모든 판본이 동일하게 '雙'으로 기록하였으나, 𩇛'은 '雙'의 略字이다.
- ⑦ 碍'는 『玄談』의 모든 판본이 동일하게 '礙'으로 기록하였으나, 동일한 뜻이다.

- ⑧ '碍'는 『玄談』의 모든 판본이 동일하게 '礙' 기록하였으나 뜻은 동일하다.
- ⑨ '空'은 『玄談』의 모든 판본이 동일하게 '室'로 기록
- ⑩ '光'은 『卍續藏』은 '光'으로 新과 文豐版과 韓國版은 '燈'으로 기록함.
- ⑪ '花'는 新文豐版과 韓國版은 '花'로 『卍續藏』은 '華'로 기록하였으나 뜻은 동일하다.
- ⑫ '鯁'는 新文豐版과 韓國版 모두 '鯁'로 기록함.
- ⑬ '師'는 모든 판본이 '師'로 기록함.
- ⑭ '千'은 『卍續藏』에는 '子'로 기록하였으나 이는 『卍續藏』이 誤記한 것이다.
- ⑮ '渴'은 모든 판본이 동일하게 '竭'로 기록하고 있다. 아마 『釋題』의 '渴'이 오자인 듯하다.

比較表 6

雪岑의 『華嚴釋題』	清涼 著書 『華嚴經疏』 卷第三 (大正藏 35, p.524. 상 ~ 중)
<p>自晉譯微言則雙童現瑞. 唐翻至教則甘露呈祥. 冥衛昭然. 親紆御筆. 論成西域則地震光流. 志徹清涼則感通玄悟. 其書寫<sup>①</sup>也則經輝五<sup>②</sup>色. 栳香四達. 冬葵發艷. 瑞鳥<sup>③</sup>啣華. 讀誦則<sup>④</sup>渺然履空. 煥若臨鏡. 每含舍利. 適會神僧. <sup>⑤</sup>涌地現金色之身. 昇天止修羅之陣. 觀行<sup>⑥</sup>無生入證. 偈讚排空. 海神聽而時雨滂流. 天童迎而大水瀰漫. 講說則華梵通韻. 人天共遶. 洪水斷流. 神光入宇. 良以一文之妙 攝義無遺. <sup>⑦</sup>一偈之功能破地獄. 盥掌之水. 尚拯生靈. 讀誦思修. 功齊種智. 宿生何幸. 感遇斯文. 其事跡昭彰. 備於<sup>⑧</sup>記傳.</p>	<p>自晉譯微言則雙童現瑞. 唐翻至教則甘露呈祥. 冥衛昭然. 親紆御筆. 論成西域則地震光流. 志徹清涼則感通玄悟. 其書寫<sup>①</sup>則經輝五<sup>②</sup>色. 栳香四達. 冬葵發艷. 瑞鳥<sup>③</sup>銜華. 讀誦則<sup>④</sup>渺然履空. 煥若臨鏡. 每含舍利. 適會神僧. <sup>⑤</sup>涌地現金色之身. 昇天止修羅之陣. 觀行<sup>⑥</sup>則無生入證. 偈讚排空. 海神聽而時雨滂流. 天童迎而大水瀰漫. 講說則華梵通韻. 人天共遶. 洪水斷流. 神光入宇. 良以一文之妙 攝義無遺. <sup>⑦</sup>故一偈之功能破地獄. 盥掌之水. 尚拯生靈. 讀誦思修. 功齊種智. 宿生何幸. 感遇斯文. 其事跡昭彰. 備於<sup>⑧</sup>傳記(『大正藏』 35, p.524. 상 ~ 중).</p>

- ① 『釋題』에는 '也'가 있으나 『華嚴經疏』에는 없는 글자이다. 그러나 大正藏에 수록할 때에 校勘本으로 사용한 일본의 德川時代에 간행한 今津洪嶽 氏의 所藏本과 『卍續藏』에는 '也'가 있다.
- ② '色'은 新文豐版과 韓國版은 '色'으로, 『卍續藏』은 '彩'로 기록하였으나 의미에는 차이가 없다.
- ③ '啣'은 『卍續藏』은 '銜'으로 新文豐版과 韓國版은 '銜'의 俗字인 '御'로 기록하고

있는데 '御'도 역시 '衛'의 俗字이므로 모두 공통으로 쓰이는 글자이다.

- ④ '渺'는 大正藏에는 '眇'로 기록되었으나 『出續藏』은 '渺'로 기록하였다. 大正藏이 誤記인 듯하다.
- ⑤ '湧'은 여러 판본이 동일하게 '涌'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涌'은 '湧'의 俗字이므로 뜻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 ⑥ '則'은 『釋題』에는 없고 『華嚴經疏』와 『玄談』에는 모두 기록되었으나 여기서 '則'은 문장을 부드럽게 할 뿐이고 의미에는 별 차이가 없다.
- ⑦ '故'는 淸涼저서에는 있고 『釋題』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의미는 별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없는 편이 산뜻한 느낌을 주는 듯하다.
- ⑧ 『釋題』에는 '記傳'이라 하고 淸涼 著書에서는 '傳記'라고 하였지만 여기서는 함께 法藏이 지은 『華嚴經傳記』를 말함이 분명하다.

## V. 맺는 말

이상 우리들은 雪峯이 지은 『釋題』의 많은 부분이 淸涼澄觀의 著述을 거의 옮겨 놓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또 雪峯이 80卷 『華嚴經』의 7處 9會를 信解行證으로 분류하는 것도 『玄談』의 그것과 같다.<sup>21)</sup> 다만 澄觀과 雪峯이 같이 禪教一致를 주장하였지만 그 관점이 다르다. 즉 澄觀은 南宗禪 北宗禪, 牛頭禪의 禪師들에 두루 친근하고 그 玄理를 터득하였지만 이것을 화엄교학의 안으로 끌어들이어 교판적으로는 頓教에 자리매김하여 화엄원교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22)</sup> 바꾸어 말하면 화엄교학의 입장에서 선을 吸收하여 教禪一致를 주장하였다.

雪峯은 본 논문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釋題』의 다음 부분에서 徑截의 언구를 사용하여 知見의 病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考察하여 볼 때, 그는 오히려 禪의 입장에서 華嚴敎學을 이해한 禪教一致의 입장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23)</sup> 이 점을 생각한다면 『釋題』의 일부가

21) 설점은 『釋題』에서 80권의 경을 4분으로 나누고, 信을 말미암아 解하고 해를 말미암아 行하고 行을 말미암아 證함이 이 經 본말의 大旨라고 설하고 있다. 또 澄觀도 심종 科판 가운데 問答相屬 科에서 『화엄경』의 9會 39품의 설법을 信解行證으로 설명하고 있다.

22) 『玄談』 卷第5에 頓敎를 설명하는 가운데 “遂磨가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하였다는 것은 바로 頓교이다. 만약 한 말(一言)로 가리켜 ‘곧 마음이 이 부처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心要는 무엇으로서 전하겠는가? 그러므로 말 없는 말에 의지하여 바로 말이 끊어진 이치를 설명함이니 敎임이 분명하다. 南北宗禪은 頓교를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澄觀의 저술을 옮겨 쓴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의미는 禪的으로 살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雪峯이 인용한 澄觀의 저술도 때로는 본문과는 다르게 해석하여야 할 경우도 있다.<sup>24)</sup> 그러한 이유인지 雪峯은 澄觀의 저서에 대해서 引用的 形式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 말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주목되는 바이다.<sup>25)</sup>

- 23) 한 예를 들면 “山僧이 이 法座에 올라 華嚴大意를 提唱하니 어떤 사람이 문기를 ‘가없는 세계의 경계에 내다 내다 하는 것이 털끝 만큼도 격리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미 내다 내다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격리됨이 없는가? 답하길 ‘懷州의 소가 버를 먹었는데 益州의 말이 배가 터졌느니라.’ 어떤 이가 문기를 ‘十世古今始終이 當念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미 처음과 끝이 있는데 어찌서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가?’ 대답하기를 ‘天下에 의사를 찾는 사람이 돼지의 왼쪽 허벅지 위에 뜬을 뜨느니라.’  
 … 중략… 아무개야 알겠느냐? 사바와 安養은 길이 어긋남이 없어, 마음을 了得하면 한가지 한 집일세. 조용히 앉아 重重無盡의 香水海를 보거라. 紫金光이 하얀 연꽃에 비치네(『韓國佛教全書』 7, p.296. 하~301. 중). 또 雪峯의 『梅月堂集』에는 『十玄談要解』, 『曹洞五位說』 등 선 관계의 저술이 있다. 이 관계의 논문으로는 韓宗萬 『雪峯의 十玄要解와 曹洞禪』(위의 책, p.113~130). 閔泳珪 『金時習의 曹洞五位說』(『大東文化研究』 第13集, p.82~84). 金知見 『沙門雪峯의 華嚴과 禪의 世界』. 위의 책, p.77 ~ 111). 金知見, 『雪峯의 華嚴과 禪의 世界』(『道源柳承國博士華甲論叢』, 1983) 등이 있다.
- 24) 예를 들면 德宗이 華嚴宗旨를 開示하도록 청법함에 따라 실한 宮內說法을 去頭截尾하고 ‘화엄 종지를 개시함에 세 번 다시 어리석음을 다한다’라는 식으로 정리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는 對句의 한쪽만 따서 다른 말과 연결지어 자기 식으로 살려낸 곳도 있다.
- 25) 玉成康四郎의 위의 논문은 “그 첫머리(澄觀의 『華嚴經疏序』)의 一節을 길다랗게 인용하였다는 것은 『釋題』가 얼마나 澄觀에 대한 생각이 깊은 것이었나 하는 것을 想像케 한다. 게다가 인용의 형식이 아니고 자기의 문장 스타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 澄觀의 한쪽 팔다리가 『釋題』의 안에 융합되어 있다고 말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필자 역).